

제9장

두 번째 환상: 일곱 인 심판(2)(6:1-8:5)

이제 일곱 개의 인들 중 나머지 세개의 인을 살펴보자. 우리는 앞 장에서 일곱 개의 인들 가운데 첫 네 개의 인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지금부터 살펴볼 나머지 세 개의 인은 서로 아무 연관 없는 독립된 내용으로 진술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다섯 번째 인부터는 앞의 네 인들과 달리 너무 다른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이야기를 한다.

1. 다섯 번째 인

첫 네 개의 인의 무대가 땅이었다면, 다섯째 인부터는 그 무대가 하늘로 옮겨진다. 예수님이 다섯 번째 인을 때자,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하는 일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하늘 성전의 제단 아래서 기도하는 장면이 등장한다. 그들은 ‘땅에 거하는 자들을 언제까지 심판하지 않으실 것인가요?’(9-10)라며 하나님께 질문을 한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다른 믿음의 형제들이 그들과 같이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 응답하신다 (6:11).

하늘 성전의 제단 아래서 기도하고 있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에 대한 증거로 인해 죽임을 당한 자들이다. 이들은 믿음의 승리를 한 자들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승리를 상징하는 ‘흰 두루마기 옷’을 입혀 주신다. 이는 교회의 승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며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로 세상에서 꺾박이나 죽임을 당하여도 여기에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삶이 승리하는 삶이라는 것을 도전한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순교자적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며, 이로 인해 교회는 세상의 꺾박을 받아 순교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교회의 역사는 순교의 역사라 할 수 있다. 예수님의 초림부터 교회는 수많은 순교자를 배출해 오고 있다. 초대 교회만 하더라도 예수님의 열두 제자 가운데 사도 요한을 제외한 모든 사도들이 순교했으며, 사도 바울과 스테반도 순교하였다. 그 이후로 모든 시대 모든 나라에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수많은 성도들이 죽임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역사가 보여 준다.

지금은 이렇게 믿음의 승리를 한 영혼들이 세상의 심판을 서둘러 달라고 간구하는데, 하나님은 좀더 기다리라고 말씀하신다. 왜 하나님은 좀더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가? 만약 하나님께서 타락한 세상을 이렇게 방치해 두신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공의로운 분이 되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다른 형제들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고 하시는가? 이에 대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에서 그 힌트를 얻을 수 있다.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사백 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라 네 자손은 사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창 15:13,16)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다. 그런데 지금은 그 땅을 주실 수 없다고 말씀하신다. 왜냐하면 그 땅의 주민들의 악이 아직

가득하지 않은 상태이기에 지금 그들을 징벌하여 죽이거나 그 땅에서 내쫓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땅의 주민들의 죄가 가득 찰 때까지 기다리시다가 그 후에 그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시겠다는 것이다. 이 기간은 400 년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 준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죄를 지은 자들을 벌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은혜의 하나님이시기에 심판하시기 전에 그들의 죄에서 돌이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시다. 이는 타락한 세상이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계속 악을 행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의 강도를 높여 심판하신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다른 형제들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고 하신 말씀은 타락한 세상이 그 죄에서 돌이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회개하지 않고 죄악이 가득 차도록 행한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균형 있게 보여 준다.

2. 여섯 번째 인

예수님이 여섯 번째 인을 떼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어지고, 달이 온통 피 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기’ 시작한다(12-14). 이 재앙은 최후의 심판의 전조에 대한 묘사이다.

세상 마지막 날에 일어날 최후의 심판의 전조로 천재지변이 일어나게 된다. 신약 성경은 이러한 현상을 ‘묵시적 심판’이라 부른다(막 13:24-25, 눅 21:25-27). 그러나 이 묵시적 심판은 우주적 질서만 파괴할 뿐, 우주적 질서를 완전히 와해시키지는 않는다. 세상은 우주적 질서의 부분적 파괴로 말미암아 심한 생태계 훼손을 초래하여 치명적인 고통과 불편을 초래하게 된다.

하늘 성전에서 순교자들이 기도한 결과로 여섯 번째 재앙이 시작된다. 이는 이 땅의 재앙들이 순교자들의 신원에 대한 응답으로 주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섯 번째의 재앙으로 큰 고통과 불편을 겪고 있는 세상의 반응은 무엇인가?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게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6:15-17)

여기에 땅의 임금,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종과 자유인은 이 땅의 모든 계층을 의미한다. 즉 세상 마지막 날에 임하게 될 천재지변의 재앙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전 계층이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공포스러운 천재지변의 재앙을 맞아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버린다. 이러한 모습은 이사야서를 배경으로 한다. “사람들이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사 2:19). 이 구절은 하나님께 범죄한 일로 인하여 유다에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을 묘사하는 내용이다. 사람들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음에도 회개하지 않는 세상의 패역한 모습을 보여 준다.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 공포스러워 자신들이 숨어 있는 산과 바위를 향해 자신들 위에 떨어지라고 외친다. 만약 산과 바위가 그들에게 덮치게 된다면, 그들 모두는 죽게 될 것이다. 그런데 왜 산과 바위가 자신들 위에 덮치기를 소원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진노를 보는 것이 너무 무서웠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습은 호세아서에서도 볼 수 있다.

“그때에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호 10:8).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산당과 제단을 파괴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 무서워 그것을 보지 않기 위해 산들에게 자신들 위에 무너지게 해 달라고 소원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그린 내용이다.

3. 막간 장면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 사이에 한 막간 장면이 등장한다. 이 막간 장면은 여섯째 인으로 인해 천재지변의 재앙 중에 있는 세상이 ‘하나님의 크고 무서운 진노의 이 심판에서 누가 능히 설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응답한 장면이다. 요한은 이 막간 장면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만이 능히 설 수 있다고 대답한다. 막간 장면은 교회를 두 부분으로 나눠 설명한다. 첫째 부분은 지상에서 하나님의 인을 맞은 144,000 명에 대해 설명하며(1-8), 둘째 부분은 천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큰 무리에 대해 설명한다(9-17). 즉 첫째 부분이 지상의 전투하는 교회에 대한 설명이라면, 둘째 부분은 천상의 승리한 교회에 대한 설명이라 할 수 있다.

1) 지상의 전투하는 교회

먼저 지상의 전투하는 교회에 대해 살펴보자.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서서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고 있는 장면이 등장한다(1). 여기에 등장한 네 천사, 땅 네 모퉁이, 땅의 네 바람’ 등 4 라는 숫자는 ‘세상 전체’를 의미한다. 그리고 ‘바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데, 곧 하나님의 심판이 세상 전체에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 준다.

‘네 천사가 사방의 바람을 붙잡고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이것은 세상에 임할 재앙이 잠시 동안 저지되고 있음을 말한다. 한 천사가 나타나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네 천사를 향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7:3)고 외친다. 이는 인침을 받는 사람들을 그 재앙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다. 천사가 이마에 인을 찍는 배경은 에스겔서와 연관되어 있다.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겔 9:4,6)

그렇다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인 맞은 ‘하나님의 종들’은 누구를 의미하는가? ‘하나님의 종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144,000 명을 말한다(7:4). 144,000 명은 각 지파에서 12,000 명씩 인침을 받아 나온 숫자이다. 물론 여기에 12 지파는 문자적인 의미의 12 지파를 말하지 않는다. 이들 12 지파는 지상의 모든 교회를 상징한다. 우리는 야고보가 자신의 편지를 수신하는 교회를 ‘흠어진 열두 지파’라고 부른 것을 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흠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문안하노라”(약 1:1). 이런 점에서 인침 받은 144,000 명은 신구약의 백성을 대표하는 12 지파와 12 사도에 완전수 1,000 을 제공한 숫자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완전한 백성의 수를 의미한다.

이와 같이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은 교회를 의미하며, ‘이마에 인을 친다’는 것은 하나님이 교회를 보호해 주신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그리고 ‘네 천사들이 네 바람을 잡은 것’은 교회가 인침받을 때까지 세상에 내려질 재앙이 잠시 중지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다.

2) 천상의 승리한 교회

이제 천상 교회를 살펴보자. 천상의 교회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로 소개된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7:9)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셀 수 없는 못별’(창 15:5)과 연관되어 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자손을 약속하셨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셀 수 없는 못별 같은 자손’은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들로부터 구성된’ 구원받은 교회를 의미한다.

요한은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흰 옷을 입은 자’ 또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자들’(7:14)이라고 증거한다. 흰 옷은 ‘의로움과 ‘승리’를 상징하는 옷으로, 이들은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아 의롭게 승리한 교회를 의미한다. 또한 이들은 ‘종려 가지’를 손에 들고 어린 양 앞에 서 있었다. 역사적으로 BC 164년에 마카비의 군대가 승리하여 예루살렘 성을 되찾았을 때에 유대인들은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 종려 가지를 흔들었다. 이를 근거로 종려 나무 가지를 흔드는 이들은 ‘승리자’임을 증거한다.

승리한 교회는 하늘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 요한은 승리하여 하늘에 오른 천상의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한다.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주리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7:15-16)

이 구절은 천상의 교회가 지금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과 예배의
교제를 하며 지내고 있음을 보여 준다.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예배하고’ 있음을 뜻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 위에 장막을 치고 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계신다’는
뜻이다. 이는 천상의 교회가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히 누리며 살고
있음을 보여 준다.

또한 천상의 교회는 하늘에서 주리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햇볕과
더위에 상하지 않는 상태에 있다. 이러한 모습은 세상에서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삶이기에 이것이 천국의 복된 삶이라고 말하는 것은 좀 의아하다.
그러기에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벨론 포로 귀환을
약속하신 말씀과 연관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 귀환을 통해 ‘또 다른 새 출애굽’을 경험하였다. 옛날 출애굽을 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통과해야 할 곳은 ‘광야’였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주리고 목마르고 햇볕과 더위로부터 해를 당하였다.
그런데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서 이러한 모든 문제들을 한
순간에 해결하였다. 이와 같이 천국의 삶을 광야에서 겪었던 모든
문제들을 단번에 해결한 가나안 땅의 삶에 비유하여 천상의 교회는 더
이상 고통이나 피로움이나 결핍이 없는 최고의 행복한 상태에 있음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막간 장면은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보호받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 준다. 지상의 교회가 전투하는 교회로 있는 동안 큰 핍박이나

환난 가운데 거하게 된다. 그러나 교회는 결국 승리하게 된다. 왜냐하면 어린 양의 피에 그 죄를 씻어 의롭게 되어 이미 승리하였기 때문이다. 교회는 지상은 물론 천상에서도 승리의 삶을 사는 자들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성도들은 자신들의 시선을 지상의 교회뿐만 아니라 천상의 교회에도 두며 살 필요가 있다. 지상의 교회는 이 땅에서의 삶을 다 마치게 되면 하늘로 옮겨져 영원한 천상에서 살아갈 존재이기 때문이다.

4. 일곱 번째 인

예수님이 일곱 번째 인을 떼자, 갑자기 하늘이 반 시간 동안 고요해 진다(8:1). 하늘이 반 시간 동안 갑자기 조용해 진 이유가 무엇일까? 탈무드에는 ‘낮에는 주께서 그의 인자를 명하시고 밤에는 그의 노래가 나와 함께 있다’는 글이 있다. 이 글을 통해 우리는 밤에는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낮에는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 하나님은 그들의 침묵을 명하신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하늘이 반 시간 동안 고요해 진 것은 하나님께서 지상에서 고난받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 하늘로 침묵하도록 명하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고요해진 반 시간 동안 요한은 한 천사가 등장하여 성도들의 기도를 금 향로에 담아 하늘의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올라가는 것을 목격한다.

왜 하나님은 ‘반 시간’ 동안 고요하게 하셨을까? 반 시간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침 제사 때 하나님께 분향을 드리는데 걸리는 시간이다. 그리고 분향은 성도의 기도를 의미한다(시 141:2). 이런 점에서 ‘반 시간’은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러지는 시간을 말한다. 이렇게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 후에 한 천사는 그 기도를 담은 향로에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아 버린다. 그리고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기 시작한다(8:5). 이러한 장면은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대

심판을 유도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것은 이 땅에서 영적 전투의 암담한 현실에서 자신들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수 있다는 불안감 속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라 할 수 있다.

끝으로 예수님이 마지막 일곱 번째 인을 떼실 때에 일곱 천사가 나아와 하나님께로부터 일곱 나팔을 받는 장면이 등장한다(8:2). 일곱 천사가 그 받은 일곱 나팔을 불기 시작할 때 또다른 관점에서의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 이는 일곱 번째 인이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보여주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관점에서의 하나님의 심판으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